



# 구제역 추가 발생, 방역당국 초비상

- 돼지이여 젖소까지, 사슴도 20여두 살처분 -

구제역 발생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우제류를 사육하는 농가에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5월초 진천과 안성에서 돼지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진정 기미를 보이던 구제역이 6월 2일과 7일, 11일에 잇따라 발생해 방역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6월 들어 기온이 높아지고 일조량과 함께 자외선량이 많아 구제역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어려운 조건이 만들어 진정 국면을 맞을 것이란 기대와는 달리 지난 6월 3일 평택시 유천동 버들농장의 돼지를 시작으로 6월 7일은 안성에서 젖소가, 11일에는 안성서 돼지가 차례로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방역당국은 긴급지시를 통해 돼지의 경우 1일 1회, 소와 사슴 등 나머지 가축은 전국 동시에 실시하는 주 1회(수요일) 소독 방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구제역 발생 농장의 우제류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했다. 또한 구제역 발생 농장 반경 500m이내의 우제류에 대해서도 살처분을 실시했으며 이중 사슴은 20여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회는 구제역 방역대책 및 진행상황

등을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는 한편 구제역이 발생한 용인, 진천, 안성 인근에 위치한 사슴농가 100여 곳에 안내문을 발송, 대처 요령 및 준수 사항 등을 알렸다.

경기도 방역당국은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경계지역내에서 사람과 차량 등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일단 대규모 확산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정국면을 보일 것이라던 예상과는 달리 2주여만에 그것도 경계지역(10km)과 관리지역(20km)을 벗어난 곳에서 추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크게 긴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보름 가까이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 조만간 통제구역이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전혀 다른 곳(평택)에서 또 발생, 답답하다”며 “당분간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제한 조치 등으로 생산물의 출하가 불가능한 구제역 관련 지역 양육농가의 운영을 위해 정부는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지원 한도로는 꽃사슴은 두당 7만5천원, 레드디어는 두당 10만원, 엘크는 두당 37만5천원이다. **한우양육**